

[보도자료] ‘국가대표 가드’ 박지현, 쿠팡플레이에서 만난다! 쿠팡 플레이, 2026 시즌 WNBA LA 스파크스 경기 한국어 생중계

2026. 5. 29.



쿠팡플레이가 2026 시즌 WNBA LA 스파크스의 경기를 생중계한다.

- 첫 중계는 5월 30일(토) 오전 8시 30분 워싱턴 미스틱스 경기 박지현의 미국 무대 도전기 한국어 독점 생중계
- “여자 프로농구 세계 최고 무대까지 품었다!” 쿠팡플레이, 대체 불가 스포츠 중계 라인업 확장 가속

.2026. 05. 29. - 쿠팡플레이가 한국 선수로서 역대 세 번째로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에 진출한 박지현의 LA 스파크스(Sparks) 경기를 한국어로 독점 생중계한다. 첫 중계는 오는 5월 30일(토) 오전 8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워싱턴 미스틱스와의 경기로, 쿠팡플레이는 국내 대표 가드 박지현의 올시즌 미국 도전기를 함께한다.

이번 LA 스파크스 생중계는 쿠팡플레이가 구축해 온 압도적인 스포츠 중계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더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국내외 축구, NBA, NFL, F1 등 이미 국내에서 압도적인 스포츠 콘텐츠를 자랑하는 쿠팡플레이는 이번 WNBA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며, 명실상부 가장 강력한 스포츠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박지현은 2018년 국내 여자프로농구(WKBL)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데뷔해 통산 158경기를 소화한 국내 간판 가드다. 지난 3월에는 ‘FIBA 여자 농구 월드컵 최종예선’ 나이지리아전에서 22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몰아치며 대한민국의 1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견인, 대회 ‘탑 퍼포머스’에 선정된 바 있다. 해외 무대 도전 가속도를 붙인 박지현은 올해 4월 LA 스파크스에 정식 입단해 정선민과 박지수에 이어 대한민국 역대 3번째 WNBA 리거가 됐다.

1997년 출범한 WNBA는 글로벌 정상급 선수들이 활약하는 세계 최고의 여자 프로농구 무대다. 남자 리그인 NBA가 시즌을 마치는 시기에 맞물려 개막해, 농구 팬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즐길거리를 빈틈없이 선사하고 있다. 박지현이 합류한 LA 스파크스는 통산 3번의 챔피언을 차지한 전통의 명문 구단으로, 켈시 플럼, 은네카 오구미케 등 리그 올스타급 자원을 두루 보유해 탄탄한 전력을 자랑한다.

현재 리그 9위에 올라있는 LA 스파크스는 5월 30일(토) 오전 8시 30분 워싱턴 미스틱스, 31일(일) 오전 7시 코네티컷 썬과 차례로 맞붙는다. 앞서 박지현은 직전 경기인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트전에서 리바운드·어시스트·스틸을 1개씩 기록, 3경기 연속 출전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태는 등 코트 적응력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국내 농구 팬들의 염원을 담아, 박지현의 WNBA 도전기를 가장 생생하게 전할 최정예 중계진도 출격한다. 워싱턴 미스틱스전은 농구 전문지 편집장 출신으로서 섬세한 설명이 특징인 손대범 해설위원과 한장희 캐스터, 코네티컷 썬전은 정교한 분석력을 자랑하는 'NBA 권위자' 조현일 해설위원과 채민준 캐스터가 현장을 전할 예정이다.

손대범 해설위원은 워싱턴 미스틱스전에 대해 “외곽 수비에 어려움을 겪으며 2연패 중인 워싱턴을 상대로, 켈시 플럼과 디어리카 햄비의 득점 부담을 덜어줄 벤치의 서포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박지현의 투입 시점과 경기 투입 시간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조현일 해설위원은 코네티컷 썬전에 대해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스파크스와 빈공에 어려움을 겪는 코네티컷의 만남이다”라며 “코네티컷 간판 센터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부상으로 공백인 상황, WNBA 최고의 원투 펀치로 꼽히는 켈시 플럼과 데리카 햄비의 활약상에 기대가 모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LA 스파크스의 경기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는 '스포츠 패스' 가입자라면 누구나 쿠팡플레이에서 시청 가능하다. 자세한 경기 정보는 물론 경기 종료 후 다시보기와 하이라이트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